

화순군, 가뭄대책 상황판단·대처사항 점검회의 개최



화순군이 가뭄 장기화에 따른 군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대응 태세에 나섰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23일 군청사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실·과·소장 등을 비상 소집, 가뭄 장기화에 따른 상황 판단과 대처사항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대응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화순군은 생활용수 분야에서 가뭄 경

계단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수원인 동북댐과 주암댐 저수율이 각각 31% 수준으로 가뭄이 지속된다면 내년 3월 고갈이 예상된다. 농업용수 분야는 관내 저수율 59%로 가뭄 주의 단계로 심각단계는 아니지만 봄철까지 가뭄 지속 시 가뭄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화순군은 즉각 가뭄대책 재난상

구북구 군수, 가뭄 장기화 대비 군민 불편 최소화 주문 “재난상황실 운영 등 군 차원 최선의 노력 다할 것”

황실을 가동하고 비상근무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하고 군민 불편 최소화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분야별 장기 대응 전략도 준비해 대책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생활용수 분야에서는 대체 수원 확보를 위한 용수개발사업 추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누수탐사·신속 복구, 물 절약 홍보를 통한 자율절감 등 현행 시행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광역시와의 상생발전을 위해 동북댐 상류인 이서면과 백야면의 농업용 관정 36곳을 가동, 1일 약 3600t의 용수 공급을 추진해 동북댐 용수 확보에 협력하기로 했다.

농업용수 분야에서는 지난 11월초 가뭄취약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예비비 약 17억 원을 투입해 저수지 준설(12개소), 관정개발(69개소) 등 용수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선제적 대응을 위한 농업용 관정 전수조사와 이용 가능한 관정의 사전 가동, 저수지 물체 우기 등도 추진할 계획이며, 봄철 가뭄 심각단계에 대비한 저수지 보조수원과 관정개발 추진에도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물 절약 현장 캠페인, 재난문자, 플래카드, 이장회의 등 모든 매체를 활용한 가뭄상황 전파와 경각심 촉구를 위한 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북구 화순군수는 “가뭄 피해 최소화를 위한 가뭄대책 재난상황실 운영, 농업용관정 일제점검, 예비비 투입 관정 개발 등 군 차원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군민들께서도 가뭄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려주시고 물 절약 국민행동요령을 철저히 준수하고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화순=박순철기자



나주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청년과 머리 맞댄다

오늘 나주정미소 공연장서 3차 포럼

나주시는 오는 24일 나주정미소 공연장에서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3차 포럼을 갖는다 고 22일 밝혔다.

포럼은 ‘나주극장×나주정미소 문화재생 콜로키움 : Vol.3 지역에서의 청년’을 주제로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개최되며 문화재생에 관심이 있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올해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생사업 대상지인 옛 나주극장을 ‘다시 나주극장’이라는 슬로건 아래 역사·장소적 가치 복원에 따른 근대 문화·예술·생활역사를 영사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6월과 9월 2차례에 걸친 주민과 담화를 통해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의 방향과 가치를 모색한 바 있다.

이번 3차 포럼은 앞서 문화재생사업을 추진 중인 나주정미소와 나주극장을 지역과 청년을 연결하기 위한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총 2부에 걸쳐 논의한다.

1부는 북촌 한옥마을과 인사동 보전, 걷고 싶은 도시 등 여러 도시설계 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한 정석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가 ‘로컬에서 더 행복해지는 법’이라는 주제 발표를 진행한다.

이어 2부에서는 지역 문화·예술 활동가이자 사회적 기업가인 안연정 전 서울시 청년허브센터장의 진행으로 지역 청년 대표들의 토론이 이뤄진다.

토론에는 광양문화도시사업단 문화기획자인 박하나 청년코디네이터, 전북 남원에서 영화감독·문화기획자로 활동 중인 함경록 문화예술협동조합 보이코 대표, 유튜브 채널 ‘오지는 오진다’를 운영하는 김현우 바비프로덕션 대표가 참여한다.

이들 청년들은 그간 활동 경험을 토대로 지역 내 유휴공간을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과 청년 대상 프로그램, 콘텐츠 개발 방향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주민담화회에 이어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 지역 청년 활동의 현 주소와 변화 가능성을 모색하고 청년세대 유입을 위한 문화적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옛 나주극장 문화재생 사업 관련 문의는 나주극장사업단(☎ 334-2122)으로 하면 된다. 나주=송준표기자

구례군,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 참가

구례군은 오는 11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 부산 벡스코에서 개최되는 ‘2022.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해 도시민을 대상으로 귀농귀촌인 유치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2022. 부산 유기농·친환경·귀농귀촌 박람회’는 부산 MBC가 주최하며 약 60여 개의 귀농귀촌 지자체 홍보관을 조성해 시군별 지원 정책 제공과 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찾아가는 귀농귀촌 설명회’, ‘전통문화 체험관’ 등의 부대행사가 진행되며 친환경 유기농

식품, 전통식품, 도시농업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가하여 홍보활동을 펼친다.

구례군은 다양한 귀농귀촌 지원 사업과 차별화된 귀농귀촌 정착시설인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2023년 교육생 모집을 중점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대면 상담을 원하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맞춤형 문자 서비스를 제공해 사전에 박람회 정보를 알리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도록 홍보할 예정이다.

구례=박진호기자

곡성군 대표 농특산물 한자리에...로컬 상생 기획전

곡성군이 11월 23일부터 29일까지 7일 동안 지역 농특산물 온라인 단독 기획전 ‘곡성을 담은 로컬 상생 기획전’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전은 SNS 및 동영상 플랫폼 사용자 증가에 맞춰 농특산물의 마케팅 경로를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1위 레시피 전문 플랫폼 만개의레시피와 함께 진행되며 온라인 커머스인 만개스토어에서 곡성군 대표 특산물인 토란, 백세미, 삼기 흑찰옥수수를 비롯해 다양한 가공 상품을 선보인다.

곡성군 관계자는 농특산물을 직접 생산하고 가공하는 농가 및 단체 10개소가 참여해 지역

만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 차별화할 수 있는 우수 농특산물로 상품을 구성했다며 기획전에 자신감을 보였다. 특히 이번 로컬 상생 기획전의 참여 경험을 바탕으로 ‘메이드인 곡성 사과주스’, ‘토란국수’ 등 농특산물 가공상품에 대해 기존 오프라인 판매 방식에서 벗어나 다양한 온라인 유통 판로를 개척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획전 기간 동안 만개의레시피 인스타그램 등 주요 SNS 플랫폼에서는 곡성 토란 들깨국 레시피, 곡성 백세미 맛있게 밥 짓기 등 대표 특산물을 활용한 레시피 영상도 만나 볼 수 있다.

곡성=양해영기자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 매출 30억 달성

김한중 군수 “농가 소득 증대 기여 노력”

올해 6월 개장한 광주광역시 북구 오룡동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이 11월 들어 총 매출 30억 원을 달성했다.

광주권 장성로컬푸드직매장은 청정 환경을 자랑하는 장성군의 신선한 먹거리를 전문적으로 판매한다.

부지면적 5257㎡에 2층 건물로,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과 정육, 수산, 김치, 샐러드 전문점 등이 입점해 있다. 2층에는 베이킹 시설과 교육장을 구비해 각종 소비자 교육과 쿠킹 클래스가 열린다. 최근에는 아이들 대상 ‘케이크 만들기’가 연일 매진사례를 기록했다. 장성 농산물로 재료를 준비해 로



컬푸드 인식 개선 효과도 거뒀다.

농산물 안전성 검사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재)장성먹거리통합센터가 전달망을 구성해 출하농가 조직화 교육을 추진하는 등 품질 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장성=기동취재본부

담양군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토론훈련 실시

담양군은 22일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 실행계획에 따른 훈련기간을 맞아 담양군 영상회의실에서 토론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군청 실무부서와 담양소방서, 담양경찰서 등 9개 유관기관에서 참석한 가운데 예기치 않은 3가지 가상 상황발생을 가정해 각 기관의 역할과 대응 방안에 대해 질의답변

통한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또한 지난 21일에는 군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담양소방서와 함께 지진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지진행동요령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 재난 상황을 대비했다.

이병노 군수는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담양=박종영기자



거리두기에도 기업시민은 ‘함께’합니다

서로 거리를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켜야만 하는 힘든 시간이지만
포스코그룹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깝게
늘 ‘함께’하고 싶은 기업이 되겠습니다

※ 포스코그룹 임직원이 직접 모델로 참여해 촬영했습니다

- POSCO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건설 포스코케미칼 포스코에너지 포스코ICT 포스코광판
- 포스코SPS 포스코엔텍 포스코O&M 포스코기술투자 포스코티미남 포스코A&C